

캐나다 소 · 돼지 사육 동향 및 전망*

이 형 우

한국과 캐나다 쇠고기 협상이 상반기 이내에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캐나다의 소 사육 현황과 전망, 쇠고기 수출입량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캐나다의 돼지 사육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 쇠고기

1)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과 협상 경과

한국-캐나다 간 쇠고기 협상이 상반기 이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캐나다 간 쇠고기 협상이 상반기 이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15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캐나다 쇠고기 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대신 양자협의를 통해 상반기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양국 간 협의 내용이 양국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서로의 요구사항에 동의한다면 WTO 패널을 통하는 것보다 양자협의로 쇠고기 문제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4월 16일자).

광우병이 발생하기 이전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을 살펴보면, 2000년 최대 1만 9천 톤까지 수입되었으며, 전체 수입 물량 중 캐나다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

* 본 내용은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 2011년 3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연구원이 작성하였다(lhw0906@krei.re.kr, 02-3299-4309).

이었다. 2003년 5월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중단되어 2003년 수입된 물량은 5천 톤에 불과하였다.¹⁾

표 1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

단위 : 천 톤

	캐나다산 수입량(A)	전체 수입량(B)	비율(A/B)
2000년	19	238	8.0 %
2001년	6	166	3.6 %
2002년	12	292	4.1 %
2003년	5	294	1.7 %

주: 광우병 발병에 따른 수입금지로 2003년 이후 수입량은 없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얻은 뒤 한국에 자국 쇠고기 수입을 요구해 왔다. WTO 분쟁패널은 캐나다의 제소로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분쟁을 심사 중이며, 상반기에 중간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양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되 부산물의 경우에는 미국산 쇠고기 허용 범위보다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캐나다 양국은 WTO 패널 외에 양자 기술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논의해왔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캐나다 소 사육 현황과 전망

2009년 캐나다 소 사육두수는 1,320만 마리였다. 송아지 생산이 증가하여 2011년 초 소 사육두수는 당초 미 농무부(USDA) 예상치보다 1.3% 증가한 1,246만 마리로 전망된다. 생우 수출은 110만 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소 사육두수는 2005년(약 1,500만 마리)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육두수 감소세로 암소 사육두수는 2005년(530만 마리)대비 2011년에는 20% 감소한 427만 마리로 추정된다. 총 사육두수에서 암소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05년 35.4%에서 2011년에는 34.3%로 1.1%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소 사육두수는 200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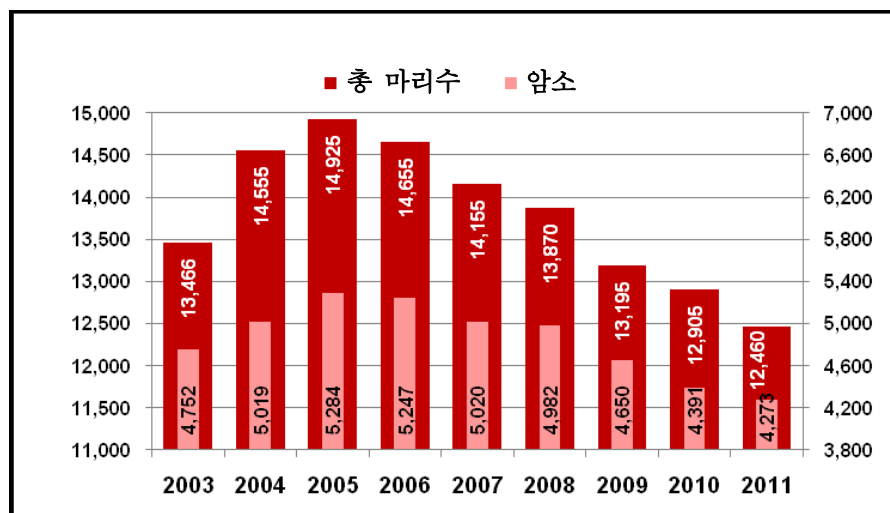
1)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계의 영향분석」, 농정연구속보 제55권(2009. 5. 7) 참조.

표 1 캐나다 소 사육 및 도축 현황과 전망

단위 : 천 마리

	2009년		2010년		2011년	
	USDA 발표치	최신 통계	USDA 발표치	재추정	USDA 발표치	재추정
연초 사육마리수(A)	13,180	13,195	13,013	12,905	12,288	12,460
젖소 사육마리수	979	979	981	981	980	987
암소 사육마리수	4,650	4,650	4,471	4,391	4,325	4,273
송아지 생산마리수(B)	5,081	4,958	4,645	4,886	4,550	4,675
수입(C)	54	54	50	55	55	55
총 마리수(A+B+C)	18,315	18,207	17,708	17,846	16,893	17,190
수출(A)	1,067	1,067	1,100	1,065	1,100	1,100
암소 도축	643	643	620	610	510	500
송아지 도축	299	299	250	250	200	200
총 도축(B)	3,705	3,705	3,820	3,739	3,790	3,815
감모(C)	530	530	500	582	475	475
연말 사육마리수(D)	13,013	12,905	12,288	12,460	11,528	11,800
총 마리수(A+B+C+D)	18,315	18,207	17,708	17,846	16,893	17,190

그림 1 캐나다 2011년 1월 1일자 소 사육 마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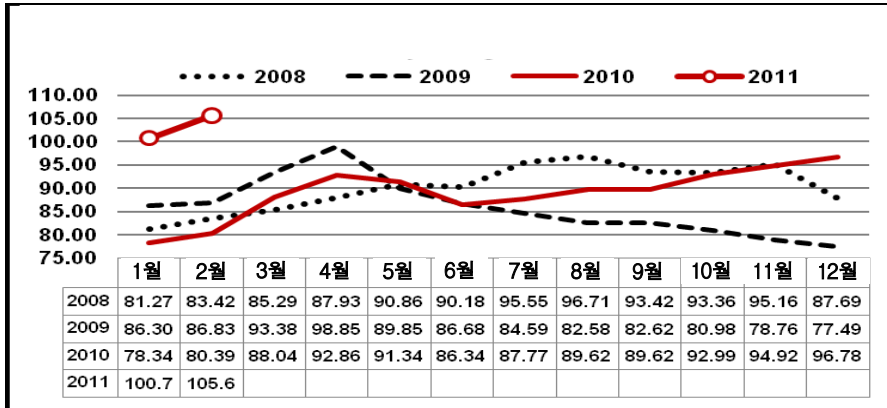


자료: Statistics Canada.

캐나다 앨버타주의 거세우 생체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12월을 정점(77.5\$)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2월 거세우 가격은 105.6\$(한화 약 11만 2천원)로 전년 동월보다 31.3% 상승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였으며, 연료비, 사료비 등 생산원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 월별 거세우 가격(앨버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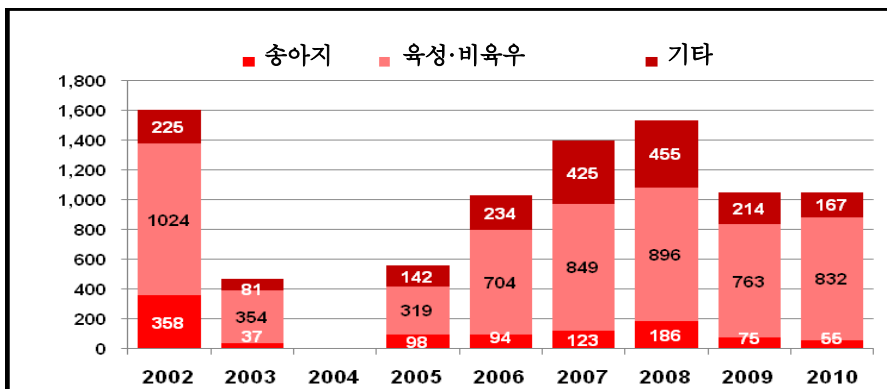
단위: 캐나다 달러/생체 100파운드



자료: Statistics Canada.

캐나다산 생우는 주로 미국으로 수출된다.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 발병으로 미국으로의 생우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4년에는 수출 자체가 중단되었다.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생우 수출이 증가하다가 캐나다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 2009년에는 감소 추세로 바뀌었다.

그림 3 캐나다 생우 대미 수출량(젖소 제외)



자료: Global Trade Atlas.

2011년 쇠고기 생산량은 당초 도축두수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127만 톤)보다 1% 증가한 128만 톤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경우 쇠고기 수출량이 총 생산량에서 40%대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표 3 캐나다 쇠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2009년		2010년		2011년	
	USDA 발표치	최신 통계	USDA 발표치	재추정	USDA 발표치	재추정
도축두수(천마리)	3,705	3,705	3,820	3,739	3,790	3,815
연초 재고(톤)	34	34	37	37	35	35
생산량(톤)	1,255	1,255	1,285	1,270	1,275	1,280
수입량(톤)	247	247	235	243	245	240
총 공급(톤)	1,536	1,536	1,557	1,550	1,555	1,555
수출량(톤)	480	481	525	524	530	530
국내소비(톤)	1,019	1,018	997	991	995	995
연말 재고(톤)	37	37	35	35	30	30
총 수요(톤)	1,536	1,536	1,557	1,550	1,555	1,555

캐나다산 쇠고기와 생우 교역의 주요 상대국은 미국이다. 미국으로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이상 기후로 공급이 감소한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2010년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량은 2009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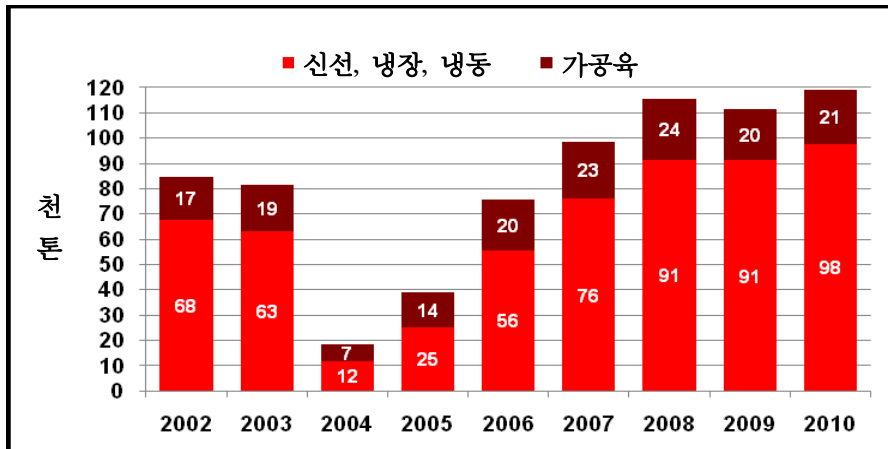
표 4 캐나다 쇠고기 수입 동향

단위: 톤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총 수입	268,309	290,280	151,000	230,009	247,034	243,312
미국	146,221	128,553	60,360	171,226	163,798	175,174
뉴질랜드	60,192	29,602	42,265	30,866	42,146	31,576
우루과이	157	34,493	27,144	6,832	16,803	15,734
호주	56,038	55,268	11,395	13,173	16,955	11,725
브라질	2,085	4,125	7,383	5,764	5,663	7,427
아르헨티나	3,439	38,168	2,315	2,061	1,603	1,625
기타	177	71	138	87	66	51
시장점유율(수입)						
미국	54.5%	44.3%	40.0%	74.4%	66.3%	72.0%
뉴질랜드	22.4%	10.2%	28.0%	13.4%	17.1%	13.0%
우루과이	0.1%	11.9%	18.0%	3.0%	6.8%	6.5%
호주	20.9%	19.0%	7.5%	5.7%	6.9%	4.8%
브라질	0.8%	1.4%	4.9%	2.5%	2.3%	3.1%

자료: Global Trade Atlas.

그림 5 캐나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동향



자료: Global Trade Atlas.

국내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2011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출량은 2010년보다 8.9% 증가한 53만 톤이었다. 이는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다소 증가하고 홍콩, 일본, 러시아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의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다소 낮아져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출선 다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홍콩, 일본, 러시아로의 수출 증가로 2011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대비 8.9% 증가한 53만 톤이었다.

표 5 캐나다 쇠고기 수출 동향

단위: 톤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총 수출	265,033	566,218	597,265	494,899	481,265	523,999
미국	249,126	471,843	516,479	403,042	390,068	415,147
멕시코	197	43,741	57,125	48,489	48,063	49,447
홍콩	116	947	13,037	10,049	12,665	21,127
일본	8,890	22,188	7	6,905	11,313	17,932
러시아	89	0	0	513	1,084	5,859
타이완	743	2,338	0	1,907	3,926	3,239
기타	5,872	25,161	10,617	23,994	14,146	11,248
시장점유율(수출)						
미국	94.0%	83.3%	86.5%	81.4%	81.1%	79.2%
멕시코	0.1%	7.7%	9.6%	9.8%	10.0%	9.4%
홍콩	0.0%	0.2%	2.2%	2.0%	2.6%	4.0%
일본	3.4%	3.9%	0.0%	1.4%	2.4%	3.4%
러시아	0.0%	0.0%	0.0%	0.1%	0.2%	1.1%

자료: Global Trade Atlas.

2. 양돈

1) 캐나다 돼지 사육 현황과 전망

2011년 캐나다의 돼지 총 마리수는 미 농무부의 당초 발표치보다 3.4% 증가한 4천 8만 마리로 전망된다.

2009년 초 캐나다 돼지 사육 마리수는 1,220만 마리였으며, 2010년 초 사육 마리수는 1,180만 마리였다. 2011년 초 사육 마리수는 당초 미 농무부(USDA)의 예상치보다 4.9% 증가한 1,190만 마리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모든 사육마리수도 130만 마리로 예상치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돼지 수출은 2009년 648만 마리에서 2011년 585만 마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축 마리수는 2011년 당초 예상보다 0.5% 감소한 2,095만 마리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1년 돼지의 총 마리수는 미 농무부의 당초 발표치보다 3.4% 증가한 4,008만 마리로 전망된다.

표 6 캐나다 돼지 사육 및 도축 현황과 전망

단위: 천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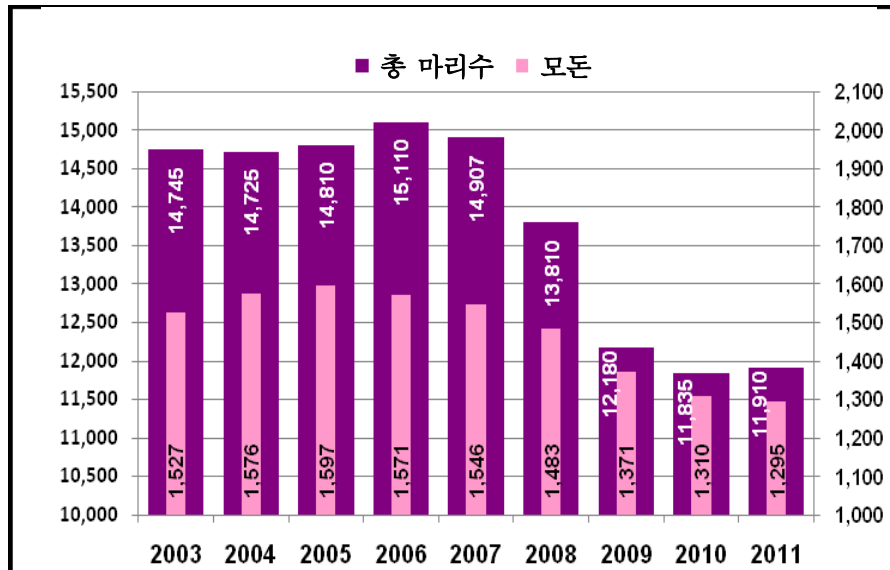
	2009		2010		2011	
	USDA 발표치	최신 통계	USDA 발표치	재추정	USDA 발표치	재추정
연초 사육 마리수(A)	12,180	12,180	11,835	11,835	11,357	11,910
모든 연초 사육 마리수	1,371	1,371	1,310	1,310	1,280	1,295
생산 마리수(B)	29,301	29,297	28,000	28,503	27,400	28,170
총 수입(C)	3	3	2	3	2	2
총 마리수(A+B+C)	41,484	41,480	39,837	40,341	38,759	40,082
수출(A)	6,376	6,376	5,760	5,761	5,900	5,850
도축(B)	21,810	21,810	21,250	21,270	20,850	20,950
감모(C)	1,463	1,459	1,470	1,400	1,325	1,382
연말 사육 마리수(D)	11,835	11,835	11,357	11,910	10,684	11,900
총 마리수(A+B+C+D)	41,484	41,480	39,837	40,341	38,759	40,082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서 새롭게 발표된 데이터는 사육 마리수 증가로 2010년에 전망한 돼지 생산보다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1,190만 마리 이상의 돼지 사육 마리수는 확실히 전년에 비해 증가했음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1,501만 마리)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모든 또한 이전에 전망된 것만큼 급격한 감소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2011년 기준 전망치보다 1% 증가한 130만 마리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2011년 생산은 약 3% 증가한 2,820만 마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말 사육 마리수는 이전에 추정된 것보다 11% 높게 재조정되었다.

그림 6 캐나다 1월 1일자 돼지 사육마리수

단위: 천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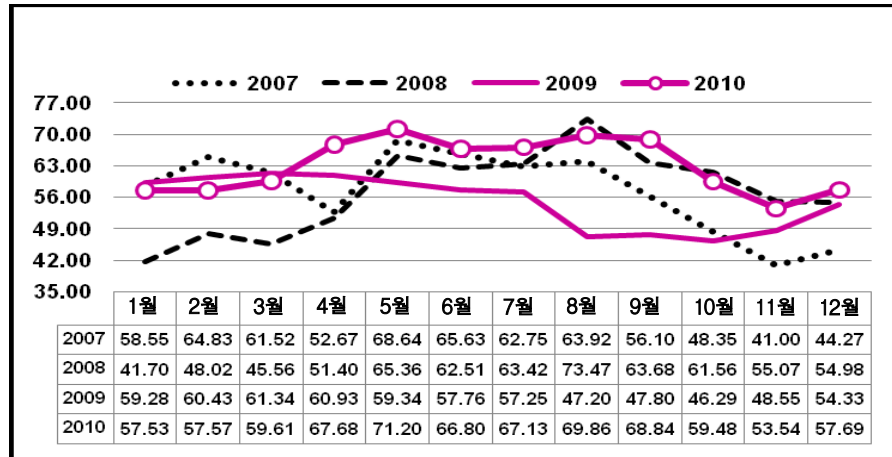
자료: Statistics Canada.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돼지 지육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10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가격이 대체적으로 평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으며, 8월 이후 하락세를 보인 이후 12월에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2010년 12월 가격은 57.69\$로 전년보다 6.2% 하락하였다.

높은 사료비용과 더불어 돼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지속되고 있어 양돈농가의 탈퇴를 지연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및 수출 시장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월별 돼지 자육 가격(매니토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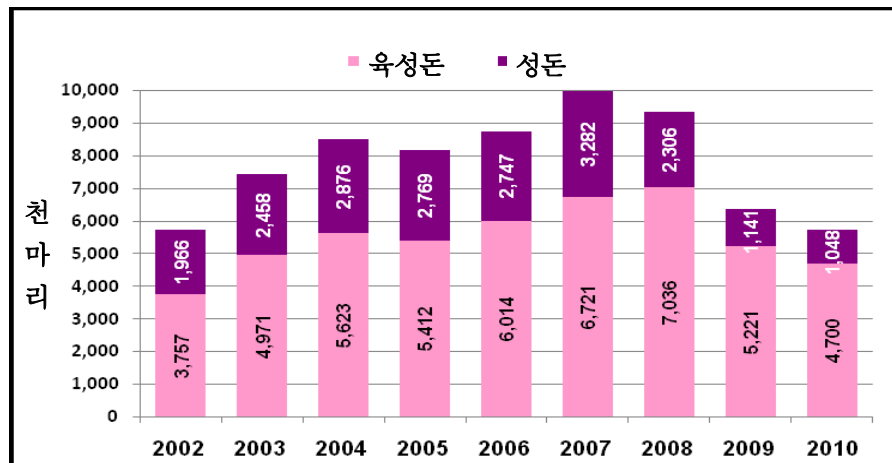
단위: 캐나다 달러/100파운드



자료: Statistics Canada.

캐나다 육용돼지의 미국 수출량은 2000년대에 들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전체 미국 수출량 중 성돈의 비중도 2008년을 기점으로 작아지는 추세이다. 2010년 캐나다 돼지의 미국 수출량은 전년대비 9.6% 감소한 총 575만 마리였으며, 이 가운데 육성돈은 470만 마리로 81.8%, 성돈은 150만 마리로 1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캐나다 육용돼지의 미국 수출량



자료: Global Trade Atlas.

충분한 국내 도축과 공급, 그리고 캐나다 달러의 강세를 감안할 때, 2011년 돼지 수출량은 585만 마리의 기존 전망치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돼지 사육 마리수는 지난 2005년(1월 1일) 이후 5년간 21.5%가 감소하였으며, 양돈 농가수 역시 12,600호에서 7,360호로 41.7%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북아메리카 양돈 산업은 신종플루(H1N1)로 인해 국내외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캐나다 달러 강세의 지속은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미국의 ‘국가 원산지 표시제’ 법안으로 인해 2007년 1천만 마리에 달하던 미국 수출량은 2009년에 640만 마리로 감소하는 등 캐나다 양돈산업은 위축될 조짐을 보였다.

캐나다 돼지 생산비는 1.36~1.46달러 수준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비교할 때 현재의 캐나다 달러 강세는 상대적으로 캐나다 가공업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 단체인 캐나다돈육협회는 ‘캐나다 돈육산업의 전략적 전환 계획’을 마련하여 연방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계획은 지속적인 돼지 생산 마리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자국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양돈장 전환 프로그램(Hog Farm Transition Program: HFTP)’으로 양돈업을 포기하거나 3년간 돼지를 생산하지 않고 시설을 유지할 경우 7,500만 달러(캐나다)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기본적으로 입찰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충분한 국내 도축과 공급, 캐나다 달러 강세를 감안할 때, 2011년 돼지수출량은 585만 마리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돈육협회는 지속적인 돼지 생산 마리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자국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캐나다 돈육산업의 전략적 전환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표 7 캐나다의 양돈장 전환 프로그램(Hog Farm Transition Program: HFTP)

지역(주)	입찰	총 입찰 가격 C\$ mil.	모든	30kg 이하	30kg 이상	계
브리티시 콜롬비아	12	\$4.4	7,945	23,567	25,913	57,425
앨버타	63	\$10.9	12,661	32,393	102,125	147,179
서스캐처원	15	\$7.7	16,748	28,002	24,624	69,374
매니토바	74	\$15.6	36,574	45,073	54,734	136,381
온타리오	206	\$27.2	41,464	105,301	168,401	315,166
퀘벡	67	\$6.1	7,885	20,434	52,280	80,599
대서양 지방	18	\$2.1	3,488	9,087	18,832	31,407
계	455	\$74.0	126,765	263,857	446,909	837,531

주: 최종 누적 입찰(2011년 1월 31일).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 캐나다 돼지고기 수입 현황과 전망

돼지고기 공급부족으로 소매가격의 상승이 전망되며 국내 소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육 마리수 증가를 바탕으로 2011년 도축실적이 기존 전망치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재추정 되었으며, 올해 172만 5천 톤으로 돼지고기 생산 전망 또한 상향 조정 되었다.

돼지고기 공급 부족으로 소매가격의 상승이 전망되며, 캐나다의 국내 소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전망치) 증가로 수입이 기존 2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하향조정 되었다.

2011년 총 공급량은 198만 5천 톤으로 전년대비 0.5%, 2009년보다는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생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 전망치보다 0.3% 감소한 수치이다.

표 8 캐나다 돼지고기 수입 현황

	2009		2010		2011	
	USDA 발표치	최신 통계	USDA 발표치	재추정	USDA 발표치	재추정
도축(천 마리)	21,810	21,810	21,250	21,270	20,850	20,950
연초 재고(톤)	59	59	52	52	40	40
생산량(톤)	1,789	1,789	1,750	1,760	1,720	1,725
수입량(톤)	180	180	200	183	230	220
총 공급(톤)	2,028	2,028	2,002	1,995	1,990	1,985
수출량(톤)	1,123	1,123	1,165	1,159	1,175	1,180
국내소비(톤)	853	853	797	796	785	780
연말 재고(톤)	52	52	40	40	30	25
총 수요(톤)	2,028	2,028	2,002	1,995	1,990	1,985

돼지고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칠레, 덴마크이며, 미국산 돼지고기가 97%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 총 수입은 18만 3천 톤으로 10년 전보다 170.5% 증가하였으며, 2005년 대비 31.5%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수입량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전년대비 2.1% 증가에 그쳤다.

캐나다에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미국과 칠레, 덴마크산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산 돼지고기가 97%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산 돼지고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덴마크산은 계속 감소하여 1%에 머물렀다.

표 9 캐나다 돼지고기 수입 현황

단위: 톤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총 수입	31,119	67,759	139,445	193,976	179,850	183,320
미국	26,320	61,883	129,818	186,380	173,488	177,435
칠레	0	0	1,027	2,510	3,039	2,262
덴마크	4,443	4,809	6,814	3,008	1,347	1,332
기타	356	1,067	1,786	2,078	1,976	2,291
시장점유율(수입)						
미국	85%	91%	93%	96%	96%	97%
칠레	0%	0%	1%	1%	2%	1%
덴마크	14%	7%	5%	2%	1%	1%

자료: Global Trade Atlas.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 수출량은 115만 9천 톤으로 10년 전인 2000년 대비 75.7%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 비해서는 7% 증가하였다. 2000년 하반기에 들어서 증가세가 주춤하여 전년대비 3.2% 증가하였다.

수출 대상국은 미국, 일본이 34.1%, 2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러시아와 멕시코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많이 수입하였다. 우리나라도 4.8%로 캐나다 돼지고기를 다섯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였다.

2011년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118만 톤으로 기존 전망치에 비해 0.4% 소폭 상향 조정되었다. 캐나다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하여, 국제 시장에서 캐나다 돼지고기의 약진이 예상된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총 수입량 17만 9천 5백 톤 가운데 1만 7천 7백 톤이 수입되어 0.1%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는 2000년대에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2005년에 10%대에 진입한 이후 처음으로 10% 이하로 낮아진 수치이다. 2011년에는 국내 구제역(FMD) 발생으로 인한 대량 살처분과 이동제한으로 생산에 큰 차질이 생겨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이 각각 34.1%, 2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러시아, 멕시코 등이 수입하고 있다.

표 10 캐나다 돼지고기 수출 현황

단위: 톤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총 수출	366,189	659,814	1,083,686	1,128,621	1,123,043	1,159,173
미국	257,416	420,854	477,899	362,890	382,969	395,559
일본	51,434	125,661	304,063	262,298	259,273	259,966
러시아	8,819	8,110	25,499	142,790	63,281	99,563
멕시코	1,894	17,049	45,565	29,549	29,097	61,834
한국	5,211	14,181	57,708	64,887	67,937	56,065
호주	3,973	13,496	44,304	45,959	61,651	50,595
필리핀	311	4,714	10,105	32,358	45,312	48,634
중국	299	1,929	18,045	23,142	22,687	38,998
홍콩	4,717	5,947	4,015	58,837	46,636	31,439
타이완	996	6,254	12,262	17,138	34,639	27,120
뉴질랜드	2,813	10,836	8,688	9,979	12,832	10,861
기타	28,306	30,783	75,533	78,794	96,729	78,539
시장점유율(수출)						
미국	70.3%	63.8%	44.1%	32.2%	34.1%	34.1%
일본	14.0%	19.0%	28.1%	23.2%	23.1%	22.4%
러시아	2.4%	1.2%	2.4%	12.7%	5.6%	8.6%
멕시코	0.5%	2.6%	4.2%	2.6%	2.6%	5.3%
한국	1.4%	2.1%	5.3%	5.7%	6.0%	4.8%
호주	1.1%	2.0%	4.1%	4.1%	5.5%	4.4%

자료: Global Trade Atlas.

표 11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 현황

단위: 톤

	총수입량	캐나다산	비중(%)
2000	95,892	8,830	9.2
2001	51,516	2,531	4.9
2002	71,045	6,284	8.8
2003	60,813	3,375	5.5
2004	108,832	8,692	8.0
2005	173,556	20,182	11.6
2006	210,555	26,060	12.4
2007	248,186	29,505	11.9
2008	214,378	28,407	13.3
2009	209,858	26,266	12.5
2010	179,510	17,743	9.9

참고문헌

「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 2011년 3월호